

< 새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

이사야 40:31 / 새찬송가 38장

1.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하다.

힘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힘이란 다시 일어나게 해 주는 힘을 말합니다(잠24:16). 천국에서는 넘어질 일이 없으나 이 땅에서는 악한 영들의 방해와 여러 질병 등으로 넘어질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해 주는 새 힘은 크고 위대한 힘보다도 더 좋은 힘이며(시37:23,24),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새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져 시원함을 누리듯이 우리의 환경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다가올 때 그때그때 물리쳐 주는 면역력처럼 말입니다.

2. 오직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리움이나 소망을 품고 자비와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과 관심을 가지고 자비와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앙망한다는 것은 앙망하는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대상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반려견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시 123:1,2).

앙망과 기도는 같이 하는 것이지만 서로 구분이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으로써 무엇이든지 다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요15:7).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관심이 문제와 질병에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와 질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들에

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도 사라지지 않고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곧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와 희망과 미래가 다가오지만, 문제와 질병을 바라보면 답답한 현실과 고통과 두려움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탐심으로 하는 기도를 스스로 비판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의 패턴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 우리의 주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앙망의 대상이다.

주님을 앙망하지 않은 채 믿는 것은 저급하고 이방인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앙망하면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나 질병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앙망하면서 믿는 것이 고상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상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6:31-3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라도 그러한 것들에 관심과 염려를 집중시켜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역사 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앙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문제와 질병에 대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 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방인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사32:8).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이상적인 것(성령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애쓰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야훼를 앙망하는 믿음이며 새 힘을 얻게 되는 비결입니다.

<적용&실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고상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